

<AsiaNet> 미국대두업계 일본진출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도쿄 AsiaNet=연합뉴스) 미국의 대두재배 농민들과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대두협회 (ASA)가 1956년에 최초의 해외사무소를 개설한지 50주년을 맞아 24일 도쿄에서 축하행사를 가졌다. ASA 일본사무소는 해외상품 사무소로는 최초로 미국농무부 (USDA)로부터 시장개발활동 자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사무소 개설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축하행사에는 미국의 대두재배 농민 지도자들과 ASA, 대두를 재배하는 몇몇 주의 유관 단체들, 미국대두협회-국제마케팅 (ASA-IM), 미국대두수출위원회 (USSEC), 대두연합회 (USB)의 간부들이 미국 대두재배 농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ASA의 리처드 오스틀리 회장은 "미국 대두재배 농민들과 일본 대두업계간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에 1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대두와 대두제품들을 구매했으며, 이 중에는 고부가형인 IP (Identity Preserved) 시스템에 의한 식품등급의 대두 약 51만 t이 포함됐다.

USB의 커트 라쉬 회장은 "미국 대두재배 농민들은 일본의 친구들이 우리 산업을 믿고 있는데 대해 빛을 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발전해온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일본측에서 일본유지종자가공협회(JOPA), 일본유지수출입협회(JOFEIA), 일본미소협동조합연맹 및 일본두부협회의 간부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JOPA의 사사키 신지 회장은 "ASA 오피스가 개설된 이래 지난 50년간 일본의 대두수입량은 약 1억 7천 900만 t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산 대두가 1억 5천 300만 t을 차지했다. ASA 일본 오피스가 기울인 노력의 성공을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USDA는 일본의 2006년도 대두수입량이 총 420만 t에 달할 것이며, 이 중 미국산이 2005년 수준과 비슷한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JOFEIA의 이노우에 다케시 회장은 "콩은 일본국민들의 식품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전국민의 생활에 극히 중요하다. 나는 ASA가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서 미국산 대두를 판촉 하는데 거둔 성공을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soygrowers.com>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연락처 Bob Callanan, ASA Communications Director, +314-754-1291, bcallanan@soy.org .

자료제공: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연락처: Bob Callanan, ASA Communications Director, +314-754-1291,

bcallanan@soy.org
Web site: <http://www.soygrowers.com>